

YWCA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보수)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가	다	서울 02.3705.6000	원주 033.742.6090	천안 041.575.0961
강릉 033.651.1385	대구 053.652.0070	서천 041.951.6400	의정부 031.853.6332	청주 043.265.3700
거제 055.682.4950	대전 042.254.3035	성남 031.708.2503	익산 063.857.8910	춘천 033.254.4878
경주 054.772.8141	동해 033.531.3007	속초 033.635.3523	인천 032.424.0524	충주 043.848.3240
고양 031.919.4040	마	수원 031.252.5111	자	타
광명 02.895.1966	마산 055.246.8746	순천 061.744.7990	전주 063.224.5501	통영 055.646.2547
광양 061.762.0012	목포 061.242.1611	아	제주 064.711.8322	파
광주 062.524.3511	바	안동 054.854.5482	제천 043.646.6009	파주 031.945.5998
김해 055.332.6000	부산 051.441.2221	안산 031.483.6536	조치원 041.865.0872	평택 031.651.7701
나	부천 032.668.9700	안양 031.455.2700	진주 055.755.3463	포항 054.274.4444
남양주 031.577.7762	사	양산 055.367.1144	진해 055.542.0020	하
남원 063.632.7002	사천 055.833.2344	여수 061.654.2161	차	하남 031.793.7771
논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울산 052.247.3520	창원 055.283.9488	

한국 2012 Vol. 488 03 March
YWCA



새벽날개를 펴고



글 | 김형(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기적의 밤에 나는 베를린에 머물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장벽이 무너지기 몇 시간 전, 내가 베를린 장벽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었다는 것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높은 장벽, 동·서를 사이에 두고 흐르는 작은 폭의 수로, 자유를 찾아 수로를 건너려다가 희생된 사람들의 묘비들 그리고 장벽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장벽과 거리를 두고 철조망이 둘러쳐 있었고 철조망 안에는 높게 지은 초소경비대가 군데군데 세워져 있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너무도 조용했고 초소경비대 위에는 파수꾼이 보이지 않게 서 있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철조망을 뛰어 들어가 장벽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이 벽을 무너뜨려 동·서독이 하나 되는 그 날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그날 밤 정말 장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나는 누구보다도 감격했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의 흥분과 감동, 전율,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잊을 수 없다.

나는 동·서독의 장벽이 무너지길 같이 남·북간의 휴전선이, 높은 이념의 벽이, 불신의 벽이 무너지고 남북의 백성들이 일차 안고 춤추는 감격의 그날을 소망하여 꿈꾸며 기도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사469-10)

하나님의 정의는 곧 사랑이다. 이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다. '원수까지도 사랑'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평화는 완성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눅23:34)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를 완성하셨다.

창립90주년을 맞이한 한국YWCA가 100년을 바라보며 다시 큰 꿈을 품고 새벽날개를 편다. 한국YWCA에 소속된 52개 회원Y와 10여만 명의 Y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큰 믿음과 포용, 관용과 인내, 오래 참음의 실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는 완성된다. 90주년을 맞아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분단의 벽을 허물고 하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우리의 꿈은 Y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는다.

2012년 8월 18일에 개최되는 전국회원대회(52개 회원Y 대표 5000명 참석)는 하나님 나라의 빠른 도래를 위해 100년을 향한 Y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실천하기 위한 결단과 결속, 자축과 하나됨의 어울림 축제의 날이다. 회원들의 기도와 소망이 담긴 100년 비전 선포로 100주년을 향한 Y가족들의 평화의 행진이 시작된다. 감격과 감동으로 이를 새 역사를 기대하면서 100년의 역사를 기도하며 준비하여 만나는 사랑하는 Y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Cover Story 부산YWCA어린이집 불꽃놀이

3월 새 학기를 맞아 22개 회원YWCA 26개 어린이집과 2개의 유아스포츠클럽에서 졸업식과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린이Y회원이 이 꿈나무들이 미래의 Y-TEEN, 대학Y의 언니·오빠로 성장하겠지요? 새 기운이 물씬 풍기는 3월, 싱그러운 자연 속에서 아이들의 모습이 해맑기만 합니다.



Contents

2012 Vol.488 03

- 03 90주년 특별기고 ● 새벽날개를 펴고 | 김형
- 04 YWCA 역사읽기 ● 한국YWCA 설립이야기 | 박용욱
- 06 한국YWCA 90주년 ● YWCA 100주년을 향한 10년의 행진 | 고상준
- 08 Y-정책 | Y돌봄 연구소 ● 사회적 돌봄교환 | 윤정향
- 11 | Y돌봄 현장 ● 돌봄관련 사회적기업의 나아갈 방향 | 이미영
- 13 YWCA와 사회 ● 원전과 탈핵 | 최현미
- 15 체험, Y현장 | CSW ● 새로운 여성 과제 : 농촌여성들의 역할과 도전 | 조영미
- 16 |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 YWCA,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 17 |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 맞춤형재단으로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 전선녀
- 19 조명 : Y가 만난 Y사람들 ● 조용하게 큰 세상을 만나게 한 운동가, Ruth Hern | 박은실
- 21 북한을 만나다 ● 양심 | 현인애
- 23 성명서 ● 북한이탈주민 강제복송에 대한 한국YWCA의 입장
- 24 평화시선 ● 영화 크로싱 | 한미미
- 25 월례아침기도회 ●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 김명희
- 26 연합회 소식
- 27 회원YWCA 소식
- 35 신간소개 ●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외 | 편집실

제48권 제2호 통권 488호 2012년 3월 23일 발행(등록번호 라-746호) 발행 한국YWCA연합회 편집인 유성희 편집장 차경애 편집위원 김진형·백수경·윤혜원·이경순·이은영 편집 박은실·배정미·정서연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1가 1-3 한국YWCA연합회 전화 02-774-9703 팩스 02-774-9724 http://www.ywca.or.kr 편집디자인 (주)세이미디어(02-730-0746) 구독신청안내 구독신청료 1만 원(1년분)을 내시면 대외로 보내드립니다. 농협 386-17-000052(한국YWCA연합회) 송금 후에는 연합회 사무실로 입금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YWCA 설립 이야기』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단체 가입

글 | 박용옥(연합회 위원, 3.1여성동지회 명예회장)



창립발기인

제일 먼저 활약한 김필레 ● 한국YWCA 창립에서 김필레 김활란 유각경은 잊을 수 없는 분들이다. 그중 YWCA 설립을 위하여 제일 먼저 활약한 이는 아마도 김필레라 하겠다. 그는 한국 개신교 발상지인 황해도 소래에서 신앙이 돈독한 가정에서 태어나 소래학교와 서울의 정신여학교를 거쳐 일본여자학원에서 유학하였다. 방학이면 귀국하지 않고 일본 YWCA 기숙사에서 모자란 공부를 하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YWCA의 사업과 정신을 접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YWCA를 설립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그는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자 바로 우리사회에 YWCA를 설립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별반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3.1운동 이듬해인 1920년 12월에 미국YWCA 세계부에서 조선에 YWCA 설립을 돕고자 위원단을 파견하여 정신여학교 안 겐소(Mrs. John F. Genso) 선교사 집에 머물며 재경 여성지도자들을 초청하여 YWCA의 이념과 조직활동 등을 소개하였으나, 그들이 일본 YWCA의 지회로서 조직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놓아 우리 측에서 이를 거절하였다.

김활란을 만나며 설립의 문이 열린다 ● 김필레는 이화학당 당장인 아펜젤러의 소개로 김활란을 만나면서 비로소 YWCA 설립의 문이 열릴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1922년 3월 27일 남녀 유자 30여명을 모아 제1회 발기회를 열고 YWCA 조직을 결의하고, 그 준비위원으로 회장에 유각경, 위원으로 김미리사, 김살

로매, 기경숙, 방신영을 뽑았다. 그리고 그 다음달 4월에 북경 청화대학에서 세계기독교학생대회가 개최되므로 김필레와 김활란이 장로교와 감리교 대표로 각각 참석하였다. 김필레는 이 대회를 통해 Y 설립의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였다. 대회 장소가 상해로 옮겨지자 김필레도 상해로 갔으며, 여기서 일본YWCA 총무 기와이 미찌고(川井道子)를 만나서 조선YWCA가 세계YWCA에 가입할 때 일본YWCA의 지부가 아닌 독립된 조선YWCA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도록 다짐을 받아 놓았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 지배 통치하에 있었으므로 독립적으로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일이란 결코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당시 배운 여자들의 모금활동은 걸인의 구걸과 같아 ● 귀국하여 4월 20일에 이화학당에서 제2회 발기회를 열고 하령회 개최가 결정되었다. 5월 4일에 종로 YMCA 회관에서 제3회 YWCA 발기회를 열고 하령회 경비문제를 논의하자 참석 회원 20여인이 500여원의 의연금을 냈으나 여전히 자금이 부족하여 장안의 유지를 찾아 찬조 협조를 요청키로 하였다. 당시 사회에서는 점잖은 배운 여자들의 모금활동을 걸인의 구걸행위로 간주하고 지탄하였던 고로 모금 중웃기는 일들이 있었다. 어떤 유지의 집에서는 모금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마당에 사나운 개를 풀어놓았고, 밤 늦도록 다닌다는 것을 알고 외등을 꺼버린 경우도 있었다. 우리 사회의 개화지도자


가문인 윤치호의 집을 방문했을 때는 그의 어머니가 망칙하게 여자가 남자를 찾아왔다고 당장 문밖으로 나가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여성운동에 이해가 많은 윤치호는 당시로서는 거금인 200원을 기부해주었다.

1922년 여자하령회 그리고 YWCA 발기총회 ● 이러한 어려운 준비 끝에 1922년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협성여자성경학원에서 전국 여학교 대표와 여성단체 대표들 60여명 참석 아래 여자하령회가 거행되었다. 이 하령회는 YMCA 총무 신흥우, 호주선교사 맥라렌(Mrs. C.I. McLaren), 아펜젤러(Mrs. Appenzeller) 당장 등이 강연과 기도회 등을 이끌어 여성들의 사회지도력과 영성을 높였고 축첩, 이혼, 공창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토의도 활발하여 우리 사회를 개혁시키려는 의식이 드높았다. 동 22일에는 하령회장 김활란 주관으로 YWCA 발기총회를 개최, YWCA 연합회기성회 조직을 결정하였다. 설립 당시 Y 기구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총회와 연합위원회를 두었고 집행기구로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인과 서기, 회계 각 2인으로 구성되는 임원회를 두었다. 총회와 하령회는 8~12명으로 구성되는 연합위원회가 매 총회 때 회원 투표에 의해 공천위원을 선정하고 연합위원은 공천위원회에서 천거하여 총회 인준을 받았다.

지방 YWCA 조직이 시급해지다 ● Y연합회는 이미 조직되었으나 연합회 회원으로 활동할 지방 YWCA를 조직하는 일이 시급하였다. 이에 전국 지방에 YWCA를 조직케 하기 위하여 김필레를 전국 순회책임자로 선출하여 그로 하여금 1922년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17개 처를 찾다니며 지방조직을 독려하여 연합회에 회원 YWCA로 가입케 하였다.

YWCA 창설에 적극적이던 유각경 ● 지방 Y로는 광주가 1922년 10월에 첫 번으로 조직되고, 12월 9일 눈이 펄펄 쏟아지는 저녁에 송동교회에서 유각경 사회로 20여명 인텔리 여성이 모인 가운데 서울YWCA가 조직되었으며 유각경이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유각경은 1914년 북경 협화여자전문학교에 유학하였을 때 그 학교의 학생기독교청년회 회원으로 활동하

면서 귀국하면 YWCA를 창설하겠다는 결심을 한 바 있었으므로 YWCA 창설에 적극적이었다. 서울YWCA는 창립 당시 회관이 없어 모일 때마다 간판을 등에 지고 다니며 모이는 장소에 갖다 세웠다. 조선YWCA 설립을 일찍이 지원하였던 겐소 부인이 자기 사는 집 방 하나를 빌려 주어 월례회를 할 수 있었다. 그 뒤 유희장이 태화관 유치원 선생으로 봉직하자 태화관장의 후의로 태화관에 방을 무료로 빌려주어 정문에 비로소 '경성여자기독교청년회' 간판을 걸 수 있었다. 여성과 사회를 위한 여러 사업을 하였는데 번듯한 첫 사업으로는 1925년 2월 16일부터 노동야학원을 열어 고무공장 직공부녀들에게 글을 가르쳐 문맹을 퇴치시켰던 일이며, 동 4월에는 기숙할 곳 없는 지방 부녀자들을 위하여 관철동에 30칸 되는 백상규의 큰 집을 월세로 빌려 여자기숙아파트사업을 하였다. 또한 각 백화점 여점원들을 모아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의복개량운동 등 사업을 통해 부녀자들을 일깨우고 사회를 변환시키는 일에 힘을 기울여 창립 15년 만에 회원이 3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개척회원국으로의 가입 승인 ● YWCA의 국내 활동은 비교적 순탄하게 이루어졌으나 세계YWCA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국제기구와 연계되는 활동을 해야 했다. 1924년 5월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YWCA 임원회가 개최되므로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김활란이 참석하여 조선YWCA가 세계YWCA에 회원국으로 가입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당시 우리의 여건은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부족한 점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오랜 토의 끝에 개척회원국('Pioneer' category)으로의 가입 승인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의 최초의 국제단체 가입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 하령회(1926)

YWCA 100주년을 향한 10년의 행진

글 | 고상준(90주년 코디네이터)

YWCA는 90주년은 100주년을 준비하는 시작(Opening)을 의미한다. 90주년에는 10년 뒤에 다가올 100주년에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를 꿈꾸며 10년 동안 꿈을 '잉태(생산)'하는 그 시작이다. 잉태한다는 것은 생명을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젊음의 상징이다. 단순히 신체적 젊음의 의미를 넘어서 '생산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 YWCA의 90주년은 100주년을 바라보며 향후 10년을 향한 총체적인 비전과 기획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2가지 트랙의 프로그램(행사와 활동)이 계획되고 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우리가 이런 특별한 경우를 맞이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 준비했던 유형의 행사와 활동들이다. 예를 들자면 해맞이예배(2월), 90주년 기념예배(4월), 평화순례(5월 이후), 전국회원대회와 청소년 전국대회(8월), 그리고 90주년 성탄예배(12월) 등이 이에 속한다.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가 꾸려졌고, 다면적이며 다층적인 관점에서 세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코디네이터'라는 자격으로 준비위원회에 참석할 때마다 큰 교훈을 얻는다. 어떤 특별한 일을 거행하려 할 때에 가족구성원 중의 그 누구도 마음이 다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려는 어머니의 마음과 지혜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100주년이 올 때까지 앞으로 매년 반복해야 할, 즉 90주년에 시작하여 10년을 지속해야 할 프로그램들이다. (다음의 프로그램들은 아직 논의 중에 있으며 준비위원회와 회원 Y의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이 글의 마지막 줄을 읽고 계시다면, 바로 지금! 당신이 참여할 하나의 프로그램을 결정하시길 촉구한다.

● **SUP(슌, Self Upgrade Project, 자기개발프로젝트) 프로젝트** : 100가지 분야, 100명의 여성전문인을 키우기 위해 지역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이다. 매년 100명의 멘토가 100명의 멘티를 후원하여 자기개발을 하도록 돕는다.

● **100주년 기념 연극** : 100년간 YWCA의 활동에서 견지해 온 '핵심가치'를 키워드로 삼아 지금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내용으로 공연을 준비한다. 이 작업을 10년간 지속한다.

● **100주년 기념 등반팀** : 2022년에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등반할 목적으로 매년 1회씩 전국 명산을 돌며 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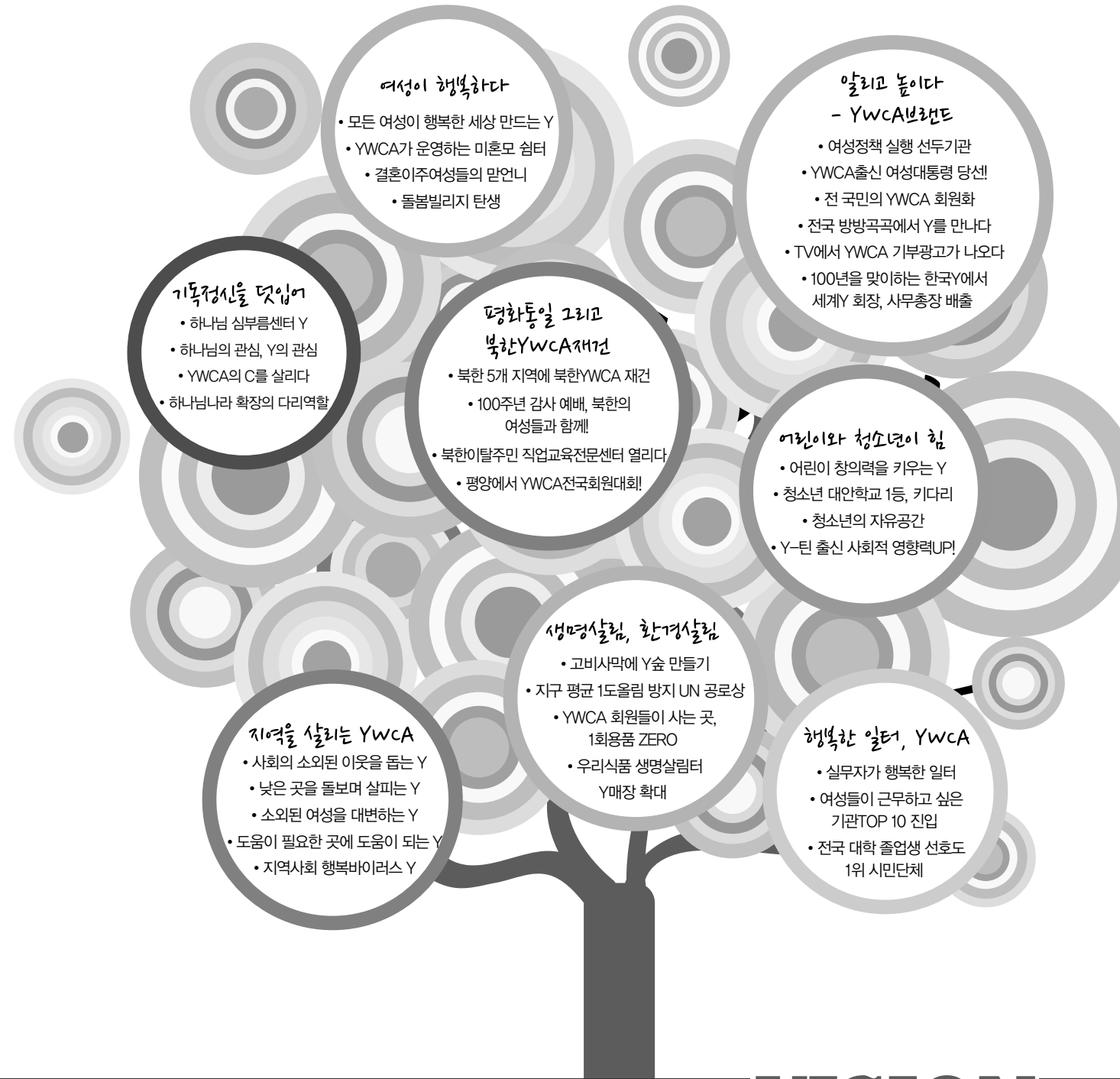
● **나무학교 프로젝트** : 평균 10세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나무를 포함한 생명살림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나무심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1회 나무심기 행사 진행한다.

● **통일리더십 아카데미** : 통일 후에 북한지역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활동할 전문가와 통일지도자, 마을기업(통일카페)과 커뮤니티를 운영할 실무자, 그리고 청소년 통일 활동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북한이탈주민 25% 포함한 준비위원회를 - 지원하는 지역Y를 중심으로 - 꾸려서 기획한다.

● **100주년 준비 기금 모금** : CMS, 모금특별행사(영화, 연극, 음악회 등 재능기부통한 특별행사), SNS 등을 통해 100주년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

한국YWCA 100주년을 향한 꿈

- 2012 90주년 해맞이 축제 회원YWCA 소원 목록에서



사회적 돌봄교환 : 돌봄이용자와 제공자의 보편적 권리실현

글 | 윤정향(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 사회의 성원으로서 사람들은 서로를 돌봐준다.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사적이든 사회적이든 돌봄을 교환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대표적인 비공식적 교환은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 찾을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부는 동반자로서 상호 지지하고 의지한다.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 간에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돌봄이 지속되는 것은 교환에 따른 책임과 보상이 사랑, 존중, 신뢰와 같이 강한 정서적 유대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돌봄의 제공'에 수반되는 '보상'은 '언젠가 갚을 보답'으로 상호 묵인 하에 이뤄진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현상이 가족의 돌봄교환을 온전히 설명해주는지는 않는다. 현대사회에서 가족 성원의 돌봄교환은 공식영역에 사회적으로 점차 의존해가고 있다. 결혼 후 출산·양육·자녀결혼·손자녀출생·황혼으로 이어지는 가족 발달주기로 보면, 단계에 따라 의사·간호사(의료시설), 보육교사·교사(보육·교육시설), 간병인·요양보호사(요양시설), 지역사회 서비스센터 등으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다. 대부분 유료서비스인데다가 개인부담이 커서, 건강보험, 요양보험, 의료급여, 그리고 보육비지원 등의 방식으로 국가가 보충한다. 국가가 상당한 역할을 맡는 이유에는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당위도 있다. 국가는 돌봄이용자의 서비스비, 돌봄공급자의 인건비, 제반시설의 운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각 요소를 연결하는 행정체계가 원활히 기능하도록 감독한다.

돌봄교환이 가족 성원 간에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도 물질적 보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며 점차 부모-자녀가족의 독립성이 강조되면서 물질적 교환은 재정적 보상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다보니 부모, 자녀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돌봄교환도 선호되며 자연스럽게 비공식 영역에서 돌봄교환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정서적 유대가 없는 낯선 돌봄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위 '돌봄서비스 시장가격'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와는 반대로 공식영역에서 '비공식적인 거래와 다를 바 없는 돌봄교환'이 성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반병원에서 쉽게 만나는 간병인 중에는 '의료시설'이라는 공식영역에서, 자신을 채용한 환자가족과 어떠한 법적 고용계약 없이도 '돌봄에 대한 대가'를 '간병료' 명목으로 받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접하는 이러한 돌봄교환의 여러 사례로부터 놓쳐서는 안 되는 대목이 있다. 우선, 돌봄제공자는 교수, 의사, 간호사, 교사와 같은 전문가들로부터 준 전문가, 비전문가까지 보건, 교육, 보육, 복지영역별로

무엇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준수, 4대보험 준수, 더불어 정부의 관리감독 인력·기구 확충, 그리고 돌봄노동자의 고용지속성 보장, 청년층부터 고령층까지 진입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서열화된 스펙트럼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하위단계로 갈수록 돌봄은 '가정내 여성노동'의 '굴레(?)'까지 덮여쓰고 있다. 바로 이것이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가족의 발달주기와 관계없이 한 개인의 생애주기는 그 자체 돌봄교환의 반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유아·청소년기까지는 돌봄수요자였다가 성년이 되면서 돌봄제공자로서의 지위가 강화되며 고령층이 되면서 돌봄수요자의 위치가 재부상하는 일련의 주기를 갖는다. 사람에 따라 더 많은 돌봄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그 반대 경우도 존재한다. 요컨대 개인의 삶의 주기와 사회적 현상이 각각으로도 돌봄교환의 연속이면서 동시에 개인과 사회 간에도 돌봄교환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인지 대목은 겉으로 보이는 개인의 밥벌이는 돌봄과 무관할 수 있을지라도 그 삶은 돌봄과 무관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돌봄직업군에서 가장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무시당하며 소득을 버는 '돌봄노동자들'은 베이비시터, 요양보호사(간병인포함), 그리고 넓게 테두리를 그렸을 때 가사도우미가 포함된다. 이들의 정확한 규모는 알기 어렵다. 다만 요양·간병 성격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약 27만명(2011년, 6월기준)인데 비공식적인 돌봄노동자를 포함하면 50

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의 월평균소득은 100만원을 넘기 어렵다. 그나마 정부의 인건비지원을 받는 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들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가입혜택은 건강보험과 실업급여가 대부분이다. 산재보험은 일부 기관을 제외한 다수의 고용주들이 기피하고 있어 산재사고에도 자기 돈을 내고 비싼 치료를 받거나 만성질환으로 악화시키는 이들이 많다. 게다가 정부지원을 받는 기관들조차도 퇴직금, 연월차휴가, 시간외근로, 휴일근로, 식비,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법령 준수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제반조건들에 둘러싸인 것이 공식·제도권 돌봄노동시장의 실체이다. 하물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관리감독조차 안되거나 법외 지역에 있는 일반 돌봄시장의 노동자들은 법적 보호망 어디에도 걸리지 못한 채 '무법지대'로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다수는 중장년층 및 경력단절 여성이다. 필자가 만나 본 돌봄노동자 중에는 직접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들이 꽤 있었는데 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면 장시간노동-저임금-빈곤 고리를 탈피하지 못한다. 돌봄직업군에서 이들보다 다소 양호한 고용조건을 보장받는 돌봄노동자들이 보육교사·유치원교사 넓게는

사회복지직군이 있다. 이들은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기본권들을 보장받는다. 그런데 국공립시설이나 대규모 시설을 제외한 다수의 영세·소규모 돌봄시설의 돌봄인력들은 자치회나 노동조합과 같은 대변자가 없는 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약자'이다. 보건복지부 공식통계에 따르면 보육·유치원교사 인력은 약 22만 2천명이다. 그런데 정부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전체 시설의 12.7%(4,517개소/35,550개소)에 불과하다. 또한 국무총리산하 육아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예산기준으로 정부와 부모의 비용분담을 비교했을 때 정부는 유치원 40.9%, 보육시설 63.7%를 부담했다. 각 가정의 양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되어 있고 보(교)육종사자는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내세우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래서 '돌봄'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하기 싫고, 인정도 못 받는 일'로 우리의 인식을 방치하거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원활동'이나 '여성의 책무'라는 편견을 갖는 한, 돌봄제공자는 앞으로도 '그림자노동자'로서 음지에 머물게 되며 노동은 존중받지 못하는 일로 위축될 것이다.

사회적 돌봄교환의 다른 한 축에는 돌봄이용자가 있다. 복지부 통계(2010~2011년)에 따르면 돌봄이용자에는 장기요양보험인정자(약 21만 6천명), 치매노인(49만 5천명), 65세 이상 1인가구(106만 5천명), 보육대상 아동(약 128만명),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등록장애인(33만 1천명)이 있다. 학령기청년층이나 다른 돌봄필요자를 제외하고 이들만의 잠정수치를 이용해 대략 350만명 정도의 돌봄이용자를 임의가정했을 때, 개인의 생애주기적 교환을 생각하든 개인-사회 간의 교환을 생각하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돌봄서비스를 보편적 권리로 누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돌봄이용자는 특정한 350만명이 아니라 앞으로 매년 최소 350만명 이상이 존재하는 보편적 다수인 것이다. 때문에 이들을 혹은 우리들을 사회가 돌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인력, 자원,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정부가 일시적·반복적 재정지원사업을 해마다 편성할 것이 아니라 체계화되고 중장기 연속성이 보장되는 정책을 수립해야만 양질의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다. 무엇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준수, 4대보험 준수, 더불어 정부의 관리감독 인력·기구 확충, 그리고 돌봄노동자의 고용지속성 보장, 청년층부터 고령층까지 진입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돌봄일자리에 햇볕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후도 춥고 서러울 게 뻔하다.

YWCA가 행동하는 청년, 깨어있는 여성의 역사를 되새김하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YWCA는 혼돈스럽고 숨막히는 경쟁사회에서 신뢰, 존중, 박애, 소통이라는 돌봄의 숭고한 가치를 부활시키는 중차대한 책임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봄교환을 둘러싸고 있는 부당하고 부정의한 현상을 바로잡아 권리로서의 사회적 돌봄교환을 정착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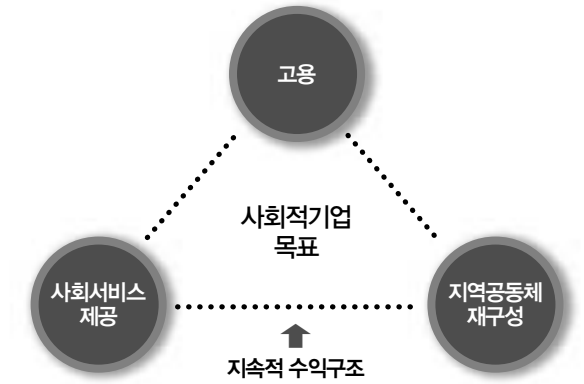


돌봄관련 사회적기업의 나아갈 방향

글 | 이미영(대구YWCA 국장)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달성과 지속가능성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경제적 성장이 있음에도 고용이 발생되지 않는 지금의 현실에서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성장과 발전으로만 사회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사회적목적달성)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사회적 기업은 세계적 경제대안이 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목표는 지속적인 수익구조를 통하여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돌봄 분야의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과연 가능한가?**

먼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창출의 역할과 돌봄 분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 한다는 의미에서 여성 일자리 확보와 고용은 가능하다. 두 번째로 사회서비스제공에 있어서는 돌봄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며, 취약계층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 역할기능도 가능하다. 세 번째로 지역공동체의 재구성 부분도 사회서비스제공 부분과 함께 지역 사회 내 사회서비스의 수혜기관, 수혜자 등 지역내 돌봄 서비스의 혜택을 통한 사회통합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목표는 공존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 사회에 꼭 필요한 기업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것 같이 지속적인 수익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

재 모든 사회적기업에 대해 정부의 동일한 지원 형태의 운영은 돌봄 분야의 사회적기업이 설 곳이 없게 한다.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지원형태를 달리하여야 그나마 현재까지 돌봄 분야의 모델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향후 새롭게 인증 받을 돌봄 분야의 영역을 갖춘 사회적기업의 존속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돌봄노동의 지속적 수익구조는 **과연 가능한가?** 먼저 돌봄노동의 특징을 살펴보면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시장원리에 의해 책정된 저임금 구조, 일정한 시간 내 수익률의 차등 적용이 미비하다. 또한 현재 돌봄노동의 사회적 인식 면에서 정식직업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 경우가 극히 적으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도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간병업무를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로에 1시간 휴식

원전과 탈핵

글 | 최현미(울산YWCA 부장)

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과 같이 비현실적인 것이 돌봄 노동의 현실이다. 따라서 돌봄노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이들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돌봄노동의 수요는 급증할 것이고, 돌봄노동의 질적 향상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돌봄노동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도출해 내야 할 우리의 또다른 과제이다.


그렇다면 사회적기업 형태의 돌봄노동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대구Y 사회적기업간병단은 2006년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로 시작해 2008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현재 정부의 인건비 지원 없이 자립한 사회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자립을 위해서 100여명에 달하던 인원을 3분의 1로 감축해야 하는 아픈 과정을 거쳤고, 자립적립금으로 각종 수당, 퇴직금, 교육 및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지속적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비단 대구Y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돌봄 분야 사회적기업의 현실인 것이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초기 비영리 단체가 주축이 되었으나 지금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의 생성으로 영리와 비영리, 기업, 종교계 등에서도 함께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경제와 사회 통합의 역할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대안적 시각은 전국 단위와 광역시 및 시도 단위의 사회적기업 민관협 의체 사단법인 '사회적기업활성화 지원센터'를 만들

어냈으며, 이 민관협의체는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위한 생태계조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말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은 돌봄노동의 사회적 기업 진입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기대하는 바 역시 크다.

돌봄노동은 근로기준법을 준행하지 못하는 형태로 유지, 운영하든지 근로기준법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익구조를 이루는 또 다른 사업과의 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돌봄분야의 사회적기업 자립도 어렵고 그것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렵다. 100여 명에 이르는 간병사를 30여명만 남기는 대대적인 인원감축 과정을 겪으면서 위안받은 한 가지는 Y를 떠나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분들로부터 듣는 말이다. "Y간병사로 일한 경력이 이력서에 들어가니 우리를 엄청 인정해 주구요, Y에서 잘 받은 교육 덕분에 대우받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대구Y 사회적기업 간병단은 간병사를 위한 교육을 중시, 향후 간병사들이 다른 업체에서 일하게 된다 하더라도 교육받은 역량을 활용하여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 1972년부터 시작된 대구Y의 돌봄 살림은 회원제 알선형태로 이루어지며, 향후 돌봄 노동 구직자들의 자생활동인 조합형태의 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돌봄노동에 대한 끊임 없는 우리의 고민과 노력이, 길게만 느껴지던 돌봄 분야의 법제화로 결실이 맺어지는 그날을 기대한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사고 1주기가 지나고 있다. 사실 일본의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전까지 우리는 핵발전과 핵발전소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생명살림을 외치고 실천하는 YWCA도 핵발전에 대해 먼 거리를 유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일본의 원전 1호기, 2호기 그리고 4호기까지 차례로 폭발하면서 핵발전소는 우리에게 아주 가깝고도 무서운 존재감을 드러내게 되었다. 핵발전소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던가?

우리의 원자력발전소는 우리나라 전체 전기의 31%를 생산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기에너지는 값싼 전기료로 인하여 전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심야전기, 야간근로, 양수발전기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에는 몇 개의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는 핵발전소가동기수가 고리5기, 영광6기, 울진6기, 월성4기 총 21기이며, 건설기수가 신고리 3기, 신월성 2기, 신울진 2기로 7기이다. 그리고 계획 기수가 4기로, 신고리 2기 신울진 2기 이렇게 하여 총 32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으며, 1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추가로 지어 2024년까지 총 42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여 현재 전력생산의 34%를 차지하는 핵발전 비율을 59%까지 끌어 올린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의 이 좁은 땅에서 그만큼의 원자력발전소가 필요한 것일까? 그리고 42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해야 할 만큼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일까?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직접 보고도 위험천만한 원전을 계속 늘려가야 하는 것일까?

원전사고는 원자력발전을 계속 하는 한, 그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필연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크고 작은 사고를 모두 합하면, 신월성 9호기 고장을 포함해 653번의 핵발전소 사고가 있었다. 그 중에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사고도 있었다. 바로 지난 2월에 고리원자력발전소에 정전사태로 인하여 냉각기능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공사 직원들이 그 사실



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냉각기능이 상실되면 노심용융의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 노심용융은 방사능유출의 주된 원인이다. 그래서 핵발전소 사고 시 24시간 이내에 국민에게 고지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공사는 그동안 지속적인 은폐로 국민들에게 거짓 안정감을 주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의 핵폭발로 인해 현재 52기의 원전 중 2기만 가동중이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곧 가동을 중지한다고 한다. 유럽의 핵 국가인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 탈핵을 결정하였고, 영국 또한 신규원전을 중단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도 원전의 신규허가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이 시점에 대한민국은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한다.


우리는 원전 추가 건설이라는 위험천만하고 반생명적 현실에 직면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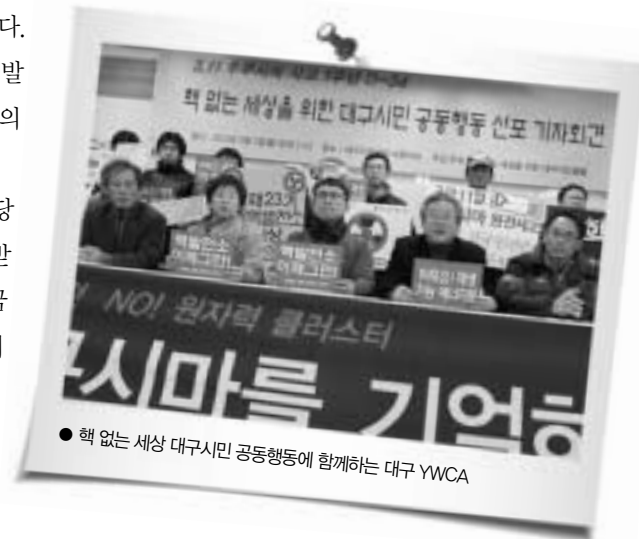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YWCA는 어떻게 해야할까.

‘생명의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를 외치는 우리는 더 이상 ‘핵으로부터의 안전’을 약속할 수 없는 현실을 묵과할 수가 없다.

그러하기에 탈핵은 우리의 기본과제이며 꼭 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체르노빌의 원전사고 이후에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사고 당시의 대기 중의 방사성물질에 의한 외부 피폭보다 주변 토양과 지하수 등에 의한 오염된 식품으로 인한 내부 피폭량이 더 많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일어난 원전사고는 지금 현 세대보다는 다음세대에 심각한 문제를 남겨주는 것이다. 또한 핵발전소의 추가적 건설은 사용후 핵연료 방폐물에 대한 문제를 남기는데, 이것 또한 지금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의 영원한 숙제로 남게 될 것이다. 핵폭발에 대한 두려움은 말할 것도 없다.

YWCA의 운동목적은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함이다. 핵발전은 우리의 목적 중 어느 것 하나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핵발전은 근본적으로 인간생명을 위협하고 파괴한다. 하나님 나라의 창조질서를 해체하는 것이다.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한다. ‘탈핵’. 국민들이 이를 알고, 지금 당장의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어 원전추가건설에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익숙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할지라도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끌어내야 한다. 우리가 조금씩 마음을 합하여 힘을 발휘할 때, 아주 먼 여행이 되겠지만 탈핵의 사회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YWCA가 가야 할 길인 것이다. 



새로운 여성 과제 : 농촌여성들의 역할과 도전

글 | 조영미(연합회 청년리더십팀 부장)



세계YWCA는 세계의 비정부 기구 중 CSW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큰 역할을 담당해 왔고 세계 여성의 역할과 이슈개발에 주력해왔다. 한국YWCA는 2000년대 초부터 CSW에 참여했으며, 작년부터 ECOSOC 지위획득을 위한 활동을 함께 전개하면서 대표를 파견한다. 올해는 함희경 실행위원과 함께 CSW, ECOSOC 서류제출, 세계YWCA와의 협력강화 등을 목표로 참가하였다.

2012년 제56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되었다. ‘농촌여성들의 연대강화와 빈곤, 기아근절, 발전에 있어서의 그들의 역할과 도전과제’라는 주제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여성문제, 농촌여성의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및 권리, 정책마련 등 다양한 논의들을 전개하였다. 우리나라도 전체인구의 약 18%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농업에 거주하는 여성비율이 52.5%인 것과, 결혼이민여성 농업인 비율이 증가하는 이 시점에 매우 중요한 주제였으며,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이주여성들의 차별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는 1946년 UN경제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립되어 매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전후하여 약 2주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다. 본 회의는 유엔회원국 가운데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선출하는 45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각 국가의 주요의제와 더불어 다양한 NGO들의 관련 활동, 여성지위향상 및 양성평등사회를 위한 정책 수립, 유엔 산하기관들의 여성관련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가장 큰 UN여성관련 회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일정은 매일 아침 7시부터 시작되어 저녁 7시까지 다양한 GO, NGO 회의 등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보고를 취합하여 홍보하는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한국YWCA가 주력했던 부분은 이주여성이슈에 주력하면서 결혼이민여성과 탈북여성들의 인권문제를 가지고 관련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을 하는 것이었다. 많은 여성들과 만나면서 한국 주요이슈와 세계이슈의 접점을 찾아보고 농촌여성들의 사회적 참여와 역할에 대한 가치, 성인지적 관점에서 그들의 역할에 대하여 비중 있게 논의하고 돌아왔다. 또한 함희경 실행위원과 나는 탈북여성과 결혼이민여성의 인권문제에 대해 모든 회의 때마다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알리는 활동에 주력했다. 한국에 돌아온 지금도 CSW의 참가자들과 함께 어떠한 활동이 전개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CSW에 참가하면서 역사속에서의 선배들 역할의 소중함을 느꼈다. 그리고 한국YWCA 운동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다. 동시에 국제운동체로서 한국YWCA의 활동이 조금 더 활발하게 전개되길 소망한다. 향후 지속적으로 2015년까지의 주요하게 논의될 MDGs, 베이징행동강령에 대한 이행의 국내적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여성단체로서의 역할을 고민하며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CSW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지도자들을 육성하는 좋은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성폭력, 이제 그만!

전남 지역은 3년 전부터 3.8 세계여성의 날 전남여성대회를 열었다. 올해 여수전남문화회관에서 광양YWCA 및 여성복지시설(가정폭력 상담소, 쉼터, 성폭력상담소, 인권지원센터) 상담원 및 활동가들이 모여 기념행사를 열고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지역민들의 여성폭력예방 의식고취 및 여성인권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였으며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었다.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맞춤재단으로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글 | 전선녀(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부장)

오늘은 지역 내 잠재 구직여성, 구인처를 직접 찾아가 발굴하는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가 있는 날이다. 주 1회(월4회) 주민자치센터, 대형마트, 공원, 산업단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찾아가 현장에서 직접 취업상담을 실시하여 구직등록을 받고 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교육훈련을 홍보한다. 포트폴리오지도사, 디베이트코치양성과정, 미술심리상담, 아이돌보미교육, 전산세무회계 과정 등이 동시에 개강하며, 그래서 인지 오늘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아침은 그 어느 때 보다 활기차고 힘이 넘친다.

YWCA,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불타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미국 노동자들이 걸기한 날을 기념, 1975년 유엔에 의해 공식 지정됐다. 국제적인 연대 운동으로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남녀차별 철폐, 여성빈곤 타파를 외쳤고 현재 까지 매년 3월 8일 세계적으로 기념대회가 이어졌다.

여성정치참여 활발해야

제주Y는 3월 7일 "여성정치참여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제주지역의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문순덕 제주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장), '매니페스토운동의 방향과 역할'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 사무총장) 발제와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확대와 여성의무공천제 추진, 정당제도 개혁과 정당 내 민주주의 확보, 사회전반의 의식개혁, 여성정치지도자 양성 등을 정치참여 확대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유권자 스스로 공적인 규제를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시민매니페스토 작성 시도를 제안하였다. 토론자들은 성인지적관점에서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12 약속해! 성평등사회 약속해 · 평화로운 사회를 약속해 · 99%의 행복을 약속해"

3월 8일, 진주시청 앞 광장 진주지역 여성단체들이 모여 3.8세계여성의 날 104주년 기념대회를 열었다. 여성들이 목숨을 걸고 참정권과 생존권을 쟁취한 세계 여성의 날 104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진주Y는 '소통이 있는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의제를 갖고 참여하였다.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2008년 5월 2일 개관했지만, 2011년 7월 1일자로 운영법인이 (사)한국YWCA연합회로 변경되어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로는 막내 센터이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개칭된 이름이다. 일찍부터 여성들이 독립된 인간으로 살아가며 자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시작된 한국YWCA의 활동은 여성이 속한 가정생활을 향상시키는 '생활계몽운동'과 일제치하에서 나라를 살리는 일에 참여시키기 위한 '사회계몽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여성직업훈련은 바로 '생활계몽운동'을 계승하는 것이다. 초기 생활계몽운동을 위하여 직업기술과 생활기술교육을 시켰다. 1925년 서울YWCA는 기청양재여숙을 설립, 양재강습과 양복실습반을 개설해 처음으로 직업훈련을 시작하였다. 이후에도 직업훈련은 계속 이어졌고, '시간제 가정부', '도배, 타일, 페인트 등 새로운 직종분야를 개발하였다. 서울YWCA는 1977년 6월 독산동 근로여성회관을 개관하였는데, 이는 Y가 직업훈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1993년 노동부로부터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명명한 여성직업훈련사업을 지원받아 서울, 광주, 부산Y에서 단기 직업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1년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하는 여성의 집'에 관한 법적 근거 정비되었고,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다.

'일하는 여성의 집'은 근로여성의 계속 취업과 기혼여성의 신규취업 촉진,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 여성의 경제활동 욕구를 충족시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일자리를 찾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센터에 방문하여 취업에 이르기까지 직업상담, 직업교육,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등 개인별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초창기 일하는 여성의 집이 직업훈련을 집중하여 운영했다면 근래에는 취업지원부를 확대하고 취업상담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즉, 직업훈련을 받기 전, 구직자의 의지와 필요를 정확히 진단하는 과정이 추가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취업지원서비스 첫 번째 단계는 직업상담이다. 내담자의 목적이 단순 정보취득 차원인지 취업욕구가 있는지, 혹은 무결정 상태에서 방문했는지 등 파악하여 내담자를 유형별로 분류한 후 다음단계 서비스를 결정한다. 또한 초기 직업상담자 중 취업욕구는 있지만 오랜 경력단절기간을 거치며 자신감 상실, 두려움, 구직기술 미흡으로 인해 곧바로 취업활동이 주저되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집단상담 "Career School 취업희망교실"을 운영한다. 이 교실을 통해 참여자들




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진로의 방향을 정하게 된다. 곧바로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을지, 직업능력향상을 위해 직업교육을 받을지 결정하며 재취업의 길로 한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단계별로 취업준비가 잘 이루어진 구직여성에게 '새일여성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새일여성인턴사업은 오랫동안 경력단절을 경험했던 여성들의 근무능력에 대한 구인업체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구직여성들의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시켜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이다.

YWCA는 2006년 이미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적합직종개발을 시작하였다.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는 취업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언어·문화 등의 차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여성

들에게 10여회의 심층상담을 통해 원스톱으로 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사후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결혼이민여성들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관련 교육과정도 개발하고 있다.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교육은 IT직종, 지도사직종(강사등), 전문사무직종, 조리직종 등이다.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게 되었으며 4월부터는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을 수행한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장롱면허증(간호조무자격증)을 깨워 재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치과조무사" 과정을 개발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외에 근로자를 위한 직무능력향상교육, 사회문화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YWCA는 여성들의 자아실현과 권리신장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하였고, 능력실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직종개발을 해왔다. 이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바로 그 시대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읽을 줄 아는 능력과, 자아실현의 주체인 여성들의 필요를 읽을 줄 아는 능력이다. YWCA는 사회와 여성 중간에서 바로 이 역할을 담당해온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YWCA가 해야 하는 역할인 것이다. '일하는 여성의 집'은 진화한다. 그리고 진화 과정의 중심에 YWCA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다.

연녹빛 새순 같은 희망의 눈빛을 안고 센터에 온 여성들이 올해 여름·가을에는 진녹색 잘 자란 잎사귀 내고 튼실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기대하며 기도한다. 

조용하게 큰 세상을 만나게 한 운동가, *Ruth Hern*

글 | 박은실(연합회 운동국 국장)

사람을 소개해주는 운동가

디즈니랜드, 할리우드, 비버리힐스 같은 곳이 있는가 하면, 그리피스 천문대와 각종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고 따뜻한 날씨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비치들이 즐비한 곳 Los Angeles! 이곳에 미국YWCA의 한 지부인 YWCA GLA(Greater Los Angeles)가 있다.

이곳에서 만난 Ruth Hern! 실무최고책임자 Faye Washington의 행정보좌관으로, 반가운 환영의 말과 악수로 나를 맞이했다. 자기네 YWCA를 배우러 왔다는 사람에게 우리처럼 YWCA소개 브로셔와 영상을 보여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그녀는 제일 먼저 "당신이 생활하는 데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정확히 알기 위해 한 사람을 연결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녀가 제일 먼저 소개해준 사람은 YWCA GLA의 태평양·아시아 부서에서 실무자와 이사로도 활동하였고, 지금은 한인 여성들을 위해 일하는 KAWA(Korean-American Women's Association) 한미여성회 회장 Esther Kim이었다. Ruth가 소개해준 Esther Kim 회장님은 내가 연수를 온 목적, 생활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을 아주 편안하게 들어주었고 KAWA에서 해줄 수 있는 일, LA YWCA에 전달할 일, 다른 단체와 연결해 줄 일들로 분류하고 나의 연수를 시작하게 하였다. 이 첫 만남은 KAWA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KAWA주최로 연변대학의 연구소인 부녀문제연구중심 김화선 소장이 참여한 한·미·중 여성들의 삶에 관한 심포지움으로 확대되었다. 여기서 나는 발제자로 참여하여 한국YWCA운동도 소개하고 더 나은 여성의 삶을 위해 세 나라 여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논의하였다. 또한 올해 여름 서울YWCA 한·미·일 청소년캠프와 연합회 청소년전국대회에 미국의 청소년들이 방문하는 계획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 사무총장 비서 Ruth Hern(가운데)와 프로그램 담당 디렉터 Sharon Shalton(오른쪽)



지역사회를 살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사람들

Ruth는 두 번째 만남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신입 직원도 초대하여 함께 하였다. 차에 있는 손녀의 인형을 치우며 주말에 딸과 손녀와 함께





1 청소년직업훈련학교(Job Corps) 건축설계자, 책임실무자와 함께
2 KAWA한미여성회 주최 한, 미, 중 여성미래토론회를 마치고

했던 시간들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한 동료직원의 아이들, 나의 아이들의 이야기를 웃으며 열심히 들어주었다. Y에서 일하는 것이 어쩌냐고 묻는 나에게 “나의 활동으로 우리가 사는 곳을 더 좋게 만들어 여성들,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안전하게, 성장하며 살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라고 대답하였다. 미국 YWCA가 주창하는 운동의 모토는 ‘인종차별 없애기, 여성의 역량강화(eliminating racism, empowering women)’이며, LA YWCA의 슬로건은 ‘We create a safe space to live, learn, and grow.’ 이다. 회원은 870명이지만 직업훈련기관, 성폭력위기지원센터, 지역이름을 붙인 임파워먼트센터(유니온 퍼시픽, 메사, 컴톤, 노스벨리 임파워먼트센터), 어린이집 등 6개의 지부를 포함하여 1,400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특별히, 이달에 4,300여 평 규모의 지하 3층, 지상 7층짜리 400명의 기숙시설을 갖춘 청소년 무료직업훈련학교(Job Corps)에 입주하게 되는데, 이는 1965년부터 실시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연방정부, 주정부, 기업, 개인 후원 등 다방면의 네트워크를 통해 2003년 계획부터 시작하여 완공한 것이다. 청소년, 노인, 여성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YWCA GLA는 ‘Greater’ 라고 붙인 이름처럼, 한 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그리고 모든 센터들의 이름을 역량강화센터(empowerment center)라고 붙였다. 브로셔는 물론 모든 기념품에는 하나의 운동 모토를 모두 새겼다.

Ruth는 Union Pacific 임파워먼트센터를 시작으로 6개 지부와 타 기관, 내가 관심 갖는 부서의 담당자들을 연결해서 빈틈없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프로그램 디렉터인 Shalton, 직업학교 디렉터인 May, 성폭력센터 담당자인 Alva, 여성쉼터 소장 Debora 등등 역시 그녀가 만나게 해준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를 좋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냥 좋아서 해내는 99.5점

그녀는 내가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한국말로 말할 때도 알아듣고 대답을 해 줄 정도로 민감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아이 같은 표정으로 국가 Y에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평가에서 99.5점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였다. 국가 Y에서 동료평가(peer review)라는 이름으로 제시하는 체크리스트와 관련 자료, 방문을 통하여 점수를 매기는데 그 평가에서 99.5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평가 영역에는 한국YWCA로 말하면 운동정책에 해당하는 Hallmark Project가 비중치가 높다. ‘이 점수에 따른 이익이나 불이익이 있느냐’고 묻는 나를 보고 그녀는 호탕하게 웃으며 ‘포상도 불이익도 없지만, 우리Y의 모든 활동을 하나의 목표에 연결하고 집중해서 잘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냥 좋아서 한다’ 라고 말했다. 나는 순간 머리를 무언가로 맞은 듯했다. 그냥 좋아서 해내는 99.5점!

관계를 이어가는 운동가

정희경 지도력기금의 지원으로 두 달간 아이 둘을 데리고 한 연수! 이 연수는 내게 삶과 열정을 되찾게 하였고, YWCA라는 이름으로 세계의 여성들과 네트워크하는 마음의 꿈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일하는 주의 딸들이 많은데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해서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 더 큰 열정과 헌신으로 한국YWCA운동을 하리라는 다짐으로 다시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애쓰던 귀국 후 둘째날, 그녀의 안부메일이 와 있었다. ‘그저 잘 도착했는지 궁금해서 메일 보내봅니다. 아이들하고 안전하게 집에 잘 도착했지요? 그녀는 시끄럽지 않은 운동가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관계를 넓히고 그것을 끊어지지 않게 이어가는 조용한 운동가! 그녀에게 예강이, 예진이 웃는 얼굴과 연합회 동료들 얼굴을 첨부해서 또 한 번 메일을 써야겠다. ‘Dear Ruth!’

양심

탈북자복송반대 운동에 동참하며

글 | 현인에(NK지식인연대 부대표)

모처럼 탈북자복송반대를 위한 운동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박선영의원의 단식을 계기로 시작된 탈북자복송반대운동이 남한은 물론 국제사회까지 확산되었다. 매일 점심과 저녁 한 번씩 한국주재 중국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가 진행되었다. 탈북자복송저지를 지지하는 남한과 전 세계 시민들의 서명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처음 이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남한사회에서 북한이나 탈북자를 보는 시각이 그리 우호적이지 않아서 많이 걱정되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지, 이러한 분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하지만 이 운동이 생각보다는 크게 확대되었다. 나날이 시위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고 탈북자복송저지에 찬동하는 서명자도 수십만 명이 되었다.

북한에서는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공산주의 미풍의 소유자’로 높이 평가한다. 또한 남을 위해 자신을 스스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자본주의사회는 개인이기주의가 팽만한 사회여서 눈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고, 자기를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사회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남한에 와서 살아보니 남한은 치열한 경쟁사회다. 또한 남의 일에 상관하지 않는 것을 도덕으로 여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았다. 아프리카의 이름 없는 마을의 어린이를 위해 헌신한 신부도 있고 빈민운동에 일생을 건 시민운동가도 있었다. 탈북청소년을 맡아 십여 년간 쓴맛단맛 다 겪으며 헌신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번 복송저지 집회에 참가하면서도 이런 광경을 목격했다. 나는 탈북자이면서도 이번 집회에 얼마 참가하지 못했다. 바빠서, 약속이 잡혀서, 속으로 수많은 구실을 대면서 간 날보다 못 간 날이 더 많았다. 북한에서라면 어땠을까? 지금도 북한에서는 남한에서 자기들의 지도자를 욕했다고 그를 반대하는 항의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평양시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규탄대회에는 15만의 군중이 참가했다고 한다. 각 도별로 또 규탄대회가 계속되고 있다.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빠질 수 있었을까? 아니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매일 참가했을 것이다, 출석을 매길 테니까, 그리고 비난이 뒤따를 테니까...

그러나 남한에서는 행사참가여부에 대해 출석을 매기는 당 조직도 없고, 가지 않는다고 욕하는 간부도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뒤로 미루고 집회장을 찾았다. 눈코 뜰 사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에 대한 한국YWCA의 입장

이 없이 바빠 지내는 한 시민단체 대표는 시간이 없어 하루일이 끝난 저녁에 집회장을 찾는다고 했다. 하루라도 찾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다.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연예인들도 동참했다. “탈북자를 위해 함께 올겠습니다.” 한명 한명의 연예인이 무대에 올라서서 다짐하는 엄숙한 목소리는 콘서트에 참가한 수백 명 탈북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차가운 비가 내리던 스산한 밤에 만났던,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올라와 모임에 참가했던 한 여성을 잊을 수 없다. 그녀는 자신이 정성껏 제작한 구호판을 목에 걸고 비 내리는 행사장에 섰다. 연단에 나선 그는 언제부터 참가하려고 했는데 이제야 와서 미안하다고 사죄부터 했다. 그리고 자기 아기와 같은 한두 살도 안 된 아기들까지 다시 북송된다는 말을 듣고 너무 가슴 아파서 여기에 왔다고 했다.

한밤중에 홀몸도 아닌 두 아이의 어머니가, 연약해 보이는 여성이, 이름조차 모르는 탈북자를 위해 스스로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올라오도록 추동한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각된 양심이 아닐까 생각해보았다. 해야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하지 못하면 스스로 자책하는 양심을 지닌 사람들이어서 누가 통제하든 말든 스스로 집회장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어떠한가?!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여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31명 전원을 다 북송했다. 북송된 탈북자들, 지금 그들은 어느 차디찬 감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다. 무섭고 지긋지긋한 취조에 시달리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들은 운이 좋으면 몇 년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형을 마칠 수 있을지는 기약할 수 없다. 운이 나쁘면 시범적으로 가중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세계2차대전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수십 수백만의 유태인이 그렇게 가서 죽었다. 21세기인 오늘, 탈북자들은 그 때처럼 붙잡혀 북한관 ‘유태인수용소’로 보내지고 있다. 그때 유태인들을 돈으로 사서 생명을 구했다고 하는 선들러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졌고, 영웅이 되었다. 그 때 한 피아니스트를 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영화화되어 오늘까지도 많은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비록 오늘은 내가 부족해서, 동참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안타깝게도 탈북자북송을 지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의 진실을 담은 목소리와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는 탈북자의 고통스러운 상황은 수백수천의 양심을 가진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탈북자북송이 중지될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을 위해 비록 부족하지만 나의 양심도 보태야겠다고 마음을 다진다. 

“ 이름조차 모르는 탈북자를 위해 스스로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올라오도록 추동한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각된 양심이 아닐까 생각해보았다. 해야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하지 못하면 스스로 자책하는 양심을 지닌 사람들이어서 누가 통제하든 말든 스스로 집회장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어떠한가?!

한국YWCA는 최근에 진행된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과 관련하여 강제송환된 본인과 가족, 동료들의 비통한 심정에 깊이 통감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

최근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 송환은 죽음의 고비를 넘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다시 처참한 죽음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조치이다. 그들은 북한이탈과정에서 주변 인접국에서 국제인권규약에 보장된 인권보호를 받지 못한 채, 폭행과 인신매매, 성매매, 매춘 등의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면서도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이들로써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세계인권선언 제13조 제2항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제2항 및 제4항의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어느 나라도 떠날 자유가 있고, 아무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권리를 임의로 빼앗길 수 없다”라는 규정에 따라 주변 국가는 인도적인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1982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를 ‘경제적 동기에 의한 불법 입국자’로 간주하여 그들을 북송하고 있다. 정치적, 사회적 이념을 배제하고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권보장, 인간 생명의 존엄성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북송은 속히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YWCA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인도적 분유지원과 함께 국내 새터민의 사회적응과 정착 지원을 하고 있다. 세계YWCA도 2011년 6월에 열린 YWCA세계대회에서 한국YWCA와 일본YWCA가 제기한 북한여성과 어린이 인권 증진을 위한 결의문에 관심을 갖고 세계YWCA 주력운동으로 채택하였다. 한국YWCA는 평화운동의 일환으로 북한여성과 어린이 인권 증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한국YWCA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족의 품으로 하루속히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중국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범용적으로 적용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예수님은 남조선에만 계십니까?”

- 영화 크로싱

글 | 한미미(연합회 실행위원)




크로싱, 부성애와 가족애를 통해 북한의 현실과 탈북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영화 제목만 보고서도 시사방향을 읽을 수 있다. 크로싱(Crossing), 그 단어의 정의는 '횡단' 혹은 '교차지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북한에서 남한으로 횡단하는 의미 뿐 아니라 북한과 남한이 만나는 교차지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기독교 관점에서 해석할 때 더 놀라운 메시지가 있다. Cross+ing = Crossing. 즉 십자가(Cross)에 현재 진행형을 합하면 크로싱이 된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으며, 지금 이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시기 때문이다.

민족의 분단, 나라의 분단, 가족의 분단 속에 잔인한 엇갈림은 아버지가 그의 가족을 살리고자, 그리고 함께 살고자 몸부림치는 처절함을 통해 극대화된다. 아내의 결핵치료를 구하기 위해 북한을 떠나 목숨을 담보로 택한 불법 중국행. 살기 위해 가족과 헤어진 김용수(차인표)는 쫓겨 다니다 우연치 않게 남한으로 오게 되나, 혼자 살아남은 아들을 구출하기 위해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 하지만 끝내 아들마저 잃게 된다. 이 영화는 표면적으로는 탈북자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 북한인권 및 탈북자의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주인공에게 정치, 경제, 사회구조는 전혀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는 것만이 그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의' 라고 생각하는 '도움, 구제, 평화'의 이름이 진정 그들을 위한 것인지 심각하게 성찰해야 된다. 자기 의를 느끼게 하는 의의 행위 이전에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

파하며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compassion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너와 내가 동시에 누리는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의 compassion능력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요한1서 4:11~12)

크로싱을 보면서 먼저, 북한의 죽어가는 주님의 아들·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야 된다. 천국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은 곳을 향해 내려오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북한을 안아야 할 때이다. 정치적, 경제적, 인도주의적 등 다양한 접근 방식들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고, 살려야 되는 책임이 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25:35~36, 40) 그들을 돌보는 것은 도덕적 선행도 아니요 베푸는 아량도 아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자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영화 중에 “예수님은 남조선에만 계십니까?”라고 묻던 그 말이 지금도 내 맘을 부끄럽게 만든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글 | 김명희(나눔교회 목사)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은 것이 아니다’

본문의 평화 peace는 불안이나 갈등이 없는 완전한 정의가 실현된 상태, 어느 것 하나 조금도 부족함 없는 완벽한 행복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은 여호와에게서만 나오며 그분만이 줄 수 있는 것이다. 구약에서 미디안과의 전투를 앞두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 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는데, 주의 평화란 뜻으로 악이 득세하는 상황 가운데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기원의 의미가 있다. 평화의 원천이신 예수께서도 많은 분쟁에 휩싸이셨지만 어떤 분쟁이나 문제들도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방해할 수 없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닥친 문제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평화이며, 최악의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굳건한 믿음의 모습이다. 옥중에 있던 베드로나 바울사도가 보여준 태도에서 우리는 이 평화의 실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평화를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하는 평화,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화가 바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평화다.

평화를 얻는 방법 그것은 예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에게서 나오므로 예수를 떠나서는 결코 평화를 얻지 못한다. 또한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평화로, 고통이 수반되나 기쁨을 남겨주는 십자가다. 우리 시대의 십자가 그것은 나눔의 실체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나눔의 모습이다. 나눔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견디는 것이며, 양보와 기다림으로 고통을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나눔은 상생이다, 함께 사는 것이다.

고통을 감내하고 나서 오는 그 기쁨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실체다.

고통이 오더라도 기꺼이 해내는, 해내고자 하는 의지 거기에 나눔의 정신이 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개입,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개입,


노예와 같은 생활 속에서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개입,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나눔의 모습이다. 여기에 나눔의 실체가 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나눔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고백이 곧 나눔의 실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네 모든 소유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던 예수님의 평화가,

평화를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와이의 나눔의 순례의 여정 위에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3월 월례아침기도회 ● 연합회는 3월 2일 오



전 7시 30분에 3월 월례아침기도회를 열었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는 제목으로 김명희 목사가 말씀을 전하였으며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YWCA월례아침기도회는 전국의 회원Y가 함께하고 있으며 기도회를 통해 YWCA를 영적으로 깨우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신임사무총장 연수 ● 3월19일연합회에서 한국Y의 행정과 구조, 운동정책과 프로그램 이해 및 사무총장 역할 이해의 거제, 광명, 울산, 청주, 창원, 파주, 하남Y 총7개 회원Y 신임사무총장이 참여한 가운데 신임사무총장 연수가 있었다. 신임사무총장들의 비전 다짐과 실무 지도력 향상을 통해 회원Y의 지역 내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제1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 ● 2012도 제1차 YWCA 전국사무총장협의회가 2012 3월 20일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회원Y 사무총장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협의회는 개회예배와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의 인사말씀으로 시작하였다. '탈핵운동의 흐름'(김익중 동국대 교수)과 '협동조합기본법이해와 향후 방향'(최혁진 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강연이 있었으며 '한국YWCA 정책교육안 발표', 한국YWCA 100주년 정책비전수립 및 헌안 협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한국YWCA 운동과 정책을 일선에서 이끌어가는 전국의 사무총장들이 함께 고민과 논의를 확장시켜나가는 시간이 되었다.

YWCA 금융강사교육-기초과정 ● YWCA 금융강사교육-기초과정이 2월 22일부터 24일

까지 부천 버들캠프장에서 진행되었다. 24개 회원YWCA 47명의 예비강사들이 참가하였으며 청소년 금융교육 소개(KDI 천규승 박사), YWCA 가치관 & 씽크머니 소개(한미미 씽크머니 자문위원장), 초·중학교 교재연구, 스피치 워크숍 등이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금융교육 강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결단하였다. 2012년도 YWCA 금융강사교육 심화과정은 6월 27일~29일, 2차 기초과정은 7월 4일~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과 씽크머니 협약식 ● 3월 8일



연합회는 한국씨티은행과 '배우고 체험하는 금융교실 씽크머니' 7주년 협약식 가졌다. 이날 씨티재단 후원금 미화 4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YWCA 금융교육 인정교과서 출원 ● 2012년



씽크머니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교재 2종을 교과서로 전면개정, 서울시 교육감 인정도서로 출원하였다. 보완한 초등학교 저학년 교재와 더불어 새롭게 출간된 3종 씽크머니 교재는 회원YWCA에 무료로 배부하며, 지역의 학교들과 연계하여 교육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자연출산전문가(둘라)양성과정 ●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메디플라워에서 자연출산전문가(둘라)양성과정 교육이 있었다. YWCA의 자연출산 전개 운동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성 검토하기 위하여 연합회 돌봄과 살림팀이 주관한 교육이며, 자연출산 입문과정, 출산 양성과정, 산후돌라 양성과정이 있었다. 회원Y 실무자

총 10명이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이 있을 예정이다.

제56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참가 ●

연합회 함희경 실행위원과 조영미 부장이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제56차 UN 여성지위위원회(CSW)에 참가했다. '지역공동체 여성들의 연대강화와 빈곤 극복을 위한 그들의 역할과 도전과제'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연합회 대표단은 여성지위위원회 및 NGO 간담회 참석과 UN회의 정식대표기구 등록 준비를 하였다.

YWCA 선한식 운동 묶음 제작 ● 연합회는



선한식 운동 묶음을 제작하였다. 평화운동 북한안주지역어린이돕기 운동을 지속하면서 모금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하여 묶음을 제작하였다. 우유팩 모금통, 선한식 안내문 및 기도문, 선한식 헌금봉투로 구성되어있다.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한 밥상 나눔, YWCA선한식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문: 연합회 평화나눔팀 최윤영 간사)

한국YWCA연합회 웹진 발간 및 블로그 개설

● 연합회는 웹진을 발간하여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웹진은 월간 발간과 함께 매달 회원들에게 발송된다. 또한 한국YWCA 연합회 블로그를 개설하였다.

<http://blog.naver.com/ywcmail>

동정

- 임정미 창원YWCA 사무총장 취임(2012.3.1)
- 박진희 거제YWCA 사무총장 취임(2012.3.1)
- 박진화 연합회 운영국 신규채용
- 송록희 연합회 운동국 신규채용

● 북부

강릉 YWCA

진용재 간사

● '여성희망찾기' 교육



강릉Y는 3월12일부터 3월16일까지 '여성희망찾기' 교육을 하였다.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여성의 근로의욕을 증진시켜 취업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돕기 위함이다. 교육내용으로 치료 레크레이션, 직장생활과 안전관리, 환경살림 E.M, 인생로드맵, 긍정의 힘 발견하기, 직장인의 예절, 이미지 메이킹 등이 있고, 취업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무료교육프로그램이다.

동해 YWCA

김정은 간사

● Y-TEEN 봉사상

동해Y는 2월 8일 Y-TEEN 봉사상 시상식이 있었다. Y-TEEN 봉사상은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섬김·나눔·살림의 YWCA생명사랑공동체운동 정신을 살려 선순수범하는 학생들에게 수여한다. 동해중, 묵호고 외 총 7개교 여학생에게 시상하였으며, 앞으로도 이 학생들이 봉사할 줄 아는 여성으로 훌륭히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창구

취업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에 대한 정보 부족과 경력단절 및 자신감 결여로 노동시장 진입을 망설이고 있는 여성 또는 육아나 가사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업주부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는 취업창구를 운영하였다.

서울 YWCA

박서영 간사

● 기청공민학교 마지막 72회 졸업식



1980년대 중반 이후 홀로 명맥을 유지해 오던 서울 YWCA 기청공민학교가 2월 21일 마지막 졸업식을 하며 아쉬운 막을 내렸다. 기청공민학교는 초등학교의 기회를 잃은 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어 문명을 벗어나 세상을 읽는 지혜로운 여성이 되도록 이끌어주었다. 58세에서 77세까지 교령의 나이에도 한글을 배우기 위해 매일 복지관으로 모였다는 6명의 졸업생은 기청공민학교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남겨질 것이다.

예배로 시작된 졸업식은 졸업장 및 상장 수여 후 김선자 학교장의 말씀이 있었고, 그에 대한 감사의 글을 졸업생 대표 배성애 씨가 또박또박 읽어내갔다. 졸업가 '석별의 정'을 부르며 아

쉬움의 눈물을 흘리며 기청공민학교의 역사는 막을 내렸지만 그 기나긴 역사 속에 배움을 통해 새로운 삶을 열고 당당하게 꿈을 찾은 많은 여성들의 행복과 희망이 모두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 봉천종합사회복지관 글로벌마미 자조모임



2011년 9월에 시작된 봉천글로벌마미 친구찾기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화를 가진 결혼이주여성과 내국인이 친구가 되어 서로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처음에는 복지관이 주관되어 운영되었지만 서로 한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애뜻한 마음에 작년 12월부터 자연스럽게 자조모임으로 이어졌다. 지금은 이주

여성 8명과 내국인 9명이 매월 첫째 주 목요일 11시, 복지관 3층 조각보 사랑방에 모여 삶을 나누고 자녀와 함께 체험활동을 하며 서로를 더 알아가고 있다.

속초 YWCA

백수미 간사

● 실무자교육

속초Y 실무자교육이 있었다. 2월 24일 서울Y 전현숙 사무총장이 강사로 나서 YWCA 실무자의 역할과 자세, 신뢰에 바탕을 둔 효율적인 조직 만들기, WIN-WIN 하는 조직문화 만들기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였다. 실무자교육을 통하여 Y실무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숙고할 수 있었다.

춘천 YWCA

이명화 간사

● 회원무료특강

춘천Y는 3월 13일 회원무료특강-안동찜닭 만들기가 열렸다. 회원무료특강은 실생활에 필요하고 친근한 내용을 가지고 YWCA 회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회원무료특강으로 회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쉬운 요리 강습을 통해 회원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 한국진로상담협회 업무협약(MOU)체결

춘천YWCA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한국진로상담협회는 2월 3일 교육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진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취업 지원 활동, 자격취득 과정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한다. 앞으로 진행될 주 과정은 진로상담전문가 양성과정이며, 추후 라이프코칭전문가, 부모코치전문가, 언어폭력예방상담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이다.

● 경기

고양 YWCA

전선영 간사

● 2012 회원증모발대식 '민들레야 퍼져 나가라'

고양Y는 3월 2일 2012년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이 날 발대식에서는 민들레의식을 시작으로 고양Y 활동사를 통해 고양Y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회원증모 방법의 일환으로 CMS회원확대 방안 강의를 들었다. 3월 27일에는 거리캠페인을 통해 고양Y 회원증모와 함께 북한어린이 분유보내기모금을 전개할 예정이다. 회원운동이 주축인 Y운동에서 많은 시민들이 YWCA활동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성남 YWCA

황정아 간사

● 바른 먹을거리 운동 - 전통된장 간장 담그기



성남Y는 3월 2일부터 3일까지 회원들의 참여로 된장·간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지난 몇 해 동안 성남Y에서 전통방식으로 만든 된장과 간장은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그 맛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바른 먹을거리의 중요성이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생명살림의 먹을거리 나눔과 땅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많은 이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해 본다.

(된장1Kg : 15,000원, 간장1ℓ : 10,000원 / 구입문의 : 031-708-2503)

수원 YWCA

정지영 간사

● 수원체육문화센터, 신입생 학부모교실 개최

수원Y 수원체육문화센터는 2월 7일, 20일 2회에 걸쳐 초·중학교 신입생 부모 50명을 대상으로 '새내기 학부모교실'을 열었다. 이번 교실은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 등의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자녀들의 학교생활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부모의 역할을 교육하였다. 참가자들은 건강한 학교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안산 YWCA 문성은 간사

● 다문화 3대가족캠프



안산Y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월25일부터 26일까지 강릉 한국여성수련원에서 '3대가 함께하는 가족캠프'를 열었다. 다문화 10가정 40여명이 참석하여 부부교육, 시부모교육과 가족애를 키울 수 있는 가족 레크레이션, 레일바이크 체험을 하였다. 3대가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상호 간 문화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안양 YWCA 이한나 팀장

● 안양 초청강연 '후쿠시마를 넘어'

안양Y는 2월29일 김익중 교수(경주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를 초청하여 '후쿠시마를 넘어'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하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1년을 맞아, 사고 이후 우리나라 직·간접적 방사능오염 피해의 가능성과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성을 알리며 생명을 살리는 대안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움직임을 살펴보았다. 생명사랑운동을 이어가는 YWCA가 먹을거리안전과 에너지절감운동을 실천하며, 대안에너지정책을 위해 더욱 깊이 고민해야 할 때이다.

● 중부

대전 YWCA 강은혜 부장

●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대전YWCA성폭력상담소에서는 전문적인 상담원을 양성하기 위해 제13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을 2월 1일부터 17일까지 45명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유형별 성폭력의 이해(사이버, 성매매, 데이트, 직장내성희롱), 성폭력상담 과정 및 법률, 성폭력피해자 치료적 접근, 성폭력피해자 지원의 통합적 접근현황을 이해하기 위한 one-stop지원센터 견학 등의 내용으로 배우는 시간이 되었고, 이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훌륭한 상담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앞으로 탁월한 상담가로서 활동하길 기대한다.

제천 YWCA 류인숙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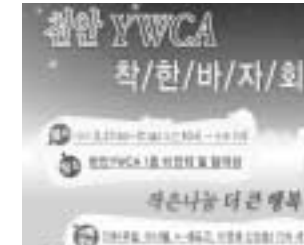
● 도배봉사



제천Y 도배봉사동아리는 2월 28일 가정환경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방문하여 도배봉사를 하였다. 도배봉사동아리는 기금을 모아 봉사활동을 한다. 이번 활동에는 신규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과 함께 모아놓은 기금으로 도배지를 사서 도배를 하였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Y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현상이 되었다.

천안 YWCA 김상미 팀장

● 책향배재회



천안Y 봄 정기 바자회가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이를 통해 작은 나눔 더 큰 행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이다.

충주 YWCA 김애영 부장

● 125주년 세계기도일

충주Y는 125주년 세계기도일 예배를 주관하였다. 매년 3월 첫 금요일에 드리는 세계기도일 예배가 3월 2일 충주감리교회에서 있었다. 말레이시아 여성들이 작성한 '너희는 정의를 구하라'라는 주제로 130여명의 각 교회 여성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으며, 충주지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역사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 서부

광주 YWCA 서정현 부장

● 학교폭력 진단 및 대책방안 토론회



광주Y는 2월28일 학교폭력 진단 및 대책 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유관기관 관계자, 교사, 학부모,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교폭력 왜 같은 일이 반복되는가"란 주제의 발제(박주정_시교육청 인성복지건강과 장학관)와,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진단" 지정토론을 가졌다. 광주Y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문제를 다루고 해결해나가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목포 YWCA 황정원 팀장

● 민들레회 보수교육



목포Y에서는 3월8일 산모돌보미의 자조모임 민들레회 보수교육이 있었다. YWCA정책을 이해하며, 돌봄운동의 주체로서의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레크레이션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여수 YWCA

이경진 간사

●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 10주년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2012 New Vision & Innovation' 이라는 주제로 3월 7일 현대웨딩홀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식전공연, 축사, 근속상 수여와 사업보고 등의 순서를 가지고 개관 10주년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 여주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전국 1위

여수Y 여주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전국 174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청소년전화 1388 만족도 평가' 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특히, 100점 만점에서 만점에 가까운 99.5점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인 83.4점을 15점 이상 웃도는 높은 점수다. 이번 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최근 학교폭력 등 청소년 위기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킴에 따라 위기청소년 지원의 기초단계인 청소년 전화 1388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2회에 걸쳐 (주)현대 리서치에 의뢰해 전화응대, 상담내용, 서비스 현황 등을 모니터링했다.

전주 YWCA

김은진 간사

● 위기청소년지도자 상담역량강화연수

전주Y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3월 23일 학교생활지도교사, 상담교사, 지역사회전문가 등 50명의 위기청소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역량강화연수를 실시하였다. 위기청소년의 행동이해와 접근법, 위기청소년상담의 실제(미술치료) 등 현장에서 학교폭력 등 위기청소년들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폭력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된 상황에서 전주Y는 청소년위기상황과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결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Y아카데미 서부지역센터 YWCA 정책교육

Y아카데미 서부지역센터를 맡은 전주Y는 3월 27일 전주비전대학교에서 한국 YWCA 정책교육을 실시하였다. 서부지역 자원지도자와 실무자 120명이 참석하여 영성훈련과 'YWCA지도자의 사명' 특강, YWCA운동중점 워크숍을 통해 Y인재상을 갖춘 자원지도자와 실무자를 양성하고 바람직한 시민교육을 정착하도록 도왔다.

● 동부

대구 YWCA

김세형 간사

● 찾아가는 회원Y 교육

Y아카데미 동부지역센터를 맡은 대구Y는 3월 23일 양산Y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회원Y 교육을 진행한다. 한국YWCA 정책 돌봄 분야는 대구Y 최정숙 회장, 평화 분야는 임성희 부회장이 강사로 선다. 또한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찾아가는 회원Y 교육을 통해 회원Y의 필요와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펼쳐나갈 것이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 1년, 이제는 탈핵이다! 1주기 시민문화행사



대구Y는 3월 10일 서울 시청 앞에서 열리는 후쿠시마 원전 1주기를 맞아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행동 캠페인에 참가하였다.



3월 11일 후쿠시마 대재앙 1주년을 맞아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핵 발전에 대한 비판 여론과 탈핵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 만들어진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1년간 국내 원전 확대 정책의 중단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대구에서도 지난 12월부터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대구시민행동"을 발족하고, 탈핵기자회견, 탈핵강사학교, 1인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활동을 모아 3월 10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민 1만 명이 함께 모여 미래 세대를 위한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시민문화행사가 열렸다.

후쿠시마 사고 1주기 추모를 위해 인간문화재 이애주 교수(서울대)의 생명평화 굿을 시작으로 1년 전 후쿠시마의 기억을 되살리는 후쿠시마 어린이(아베 유리카)와 어머니(아베 사유리)의 후쿠시마 증언과 영덕 김규리 어린이의 편지소개, 일본 시가현 도지사 유키코 카다씨의 탈핵 영상메세지, 탈핵 지지체 선언을 했던 염태영 수원시장, 김성한 노원구청장 등이 나와서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앞으로도 대구Y는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행동을 통해 원자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높여 후대에게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는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천 YWCA

정정자 간사

●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오리엔테이션



사천Y는 2월 27일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사천Y는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생활을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위한 방문교육(한국어 교육, 가족생활지도 교육)을 한다. 다문화가정이 방문교육을 통하여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습득하기를 기대한다.

진주 YWCA

최예진 간사

● Y-틴이 된 걸 환영해!



진주Y는 3월 24일, 31일 2차례에 걸쳐 Y틴 등대지기와 날개 동아리 신입생환영회를 열었다. 각 동아리별로 50여명 이상의 신입생이 들어와 Y-틴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YWCA 소개, 친교의 시간, 선배와의 만남이 있었다. 앞으로 Y다운 리더로 성장할 Y-틴의 활동을 기대한다.

포항 YWCA

안진숙 간사

● 민들레학교 수료식 및 신입생 환영회



포항Y는 3월 12일 제18회 포항YWCA 민들레학교 수료식 및 신입생 환영회를 가졌다. 김향자 회장의 인사말과 함께 졸업생들이 직접 쓴 소감문 낭독이 있었다. 지난 16년간 문맹자퇴치를 목적으로 현재까지 총 1,28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포항Y 민들레학교는 지역 내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였거나 한글해독 능력이 부족한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놓친 시민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비문해자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주 2회 초급반, 중급반 수업을 진행한다. 체계적인 학습으로 한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학습능력과 여가활동, 취미활동의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배움의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BOOK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글 캐서린 안 | 김성웅 역 | 포이에마 펴냄

이 책은 1884년부터 부흥의 원년인 1907년까지 여성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에서 초기 개신교 선교 사역에서 미국인 여성 선교사들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남성선교사의 사역에만 집중되어 여성들은 드러나지 않았다. 공식 기록 외에 여성 선교사들이 쓴 일기나 편지, 여성선교회와 주고받은 서신 등 개인적인 기록을 모아 그들의 일상과 사역이 얼마나 풍부했는지 보여준다. 또한 이들의 복음 전도 활동을 살펴보고, 이들이 어떻게 한국에 개신교회를 발전하고 성장시켰는지도 설명한다. 여성 선교사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되살림으로써 여성 선교사들을 부수적인 존재로만 바라보는 기존의 인식을 뒤집고, 이들이 선교사로서 행했던 역할과 공헌을 조명한다.



오래된 약속

글 윤정은 | 양철복 펴냄

탈북자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책. 새터민, 꽃제비, 굶주림 등 탈북자에 대한 그동안의 관념과 인식을 뒤엎고, 인간으로서의 그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1997년, 13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이 아닌 제3국으로 밀입국하여 한국에 망명 신청을 한 실제 사건. 이를 바탕으로 13명의 탈북자들과, 그들과 함께 제3국으로 가는 7천 킬로미터의 여정을 함께한 남한 사람들 3명의 동행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이 작품 속의 탈북자들은 우리와 너무도 똑같은 인간이기에 오히려 그 모습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역설을 독자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투표한다, 그러므로 사고한다

글 장 폴 주아리 | 이오경 역 | 함께읽는 책 펴냄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필가로 활동 중인 장 폴 주아리의 정치 교양서. 이 책은 저자가 2007년 프랑스에서 대선을 앞두고 출간한 책으로, 인간의 정치가 안고 있는 보편적인 고민거리들을 논의한 책이다. 고대 그리스부터 중세,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현상을 이념이나 사회적 통념에 치우치지 않고 폭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분석한다. 정치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국민이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진정한 '국민집권플랜'의 시작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에 달려 있음을 알려준다.



시장은 정의로운가

글 이정진 | 김영사 펴냄

시장과 경제의 정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지고 해법을 담은 책. 경제학자 이정진 교수가 시장의 부정의, 불공평, 불공정에 일침을 날리고 정의와 상생의 시장경제를 위한 길을 제시한다. 시장의 위력과 시장의 원리를 정의의 관점에서 풀이하고 평가하는 이 책은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예리하게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북극곰 윈스턴, 지구온난화에 맞서다!

글 진 데이비스 오키모토 | 그림 예레미야 트램멜 | 장미정 역 | 한울림 어린이 펴냄

북극곰 윈스턴과 친구들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겪게 되는 문제를 경쾌한 글과 친근한 그림으로 펼쳐 보이는 환경 그림책. 지구온난화라는 아주 심각한 주제를 동물들 시각에서 재미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로 풀어낸다. 이 책을 통해 생활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북극곰에게 눈물 대신 웃음을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다.

